

# 휴가철, 일본노선 항공권 매출 38% ↓

### 부산 가까운 日중소도시들 '직격탄'

### 항공사들도 관련 노선 줄이거나 중단

### 싱가폴·타이완 등 근거리 동남아 '주목'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일제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약 한 달, 일본 여행 자체 움직임이 고스란히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30일 이베이코리아에 따르면 G마켓과 옥션에서 지난 1~28일 4주간 일본 노선 항공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8%나 급락했다.

불매운동 중에서도 특히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일본의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관련 노선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여행 톱3에 이틀을 올린 지역으로의 항공권이 전반적으로 판매가 주춤했다. 이 중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이 많은 규슈지역(후쿠오카, 벵푸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베이 관계자는 "후쿠오카는 지리

적으로 부산과 가까워 저가항공사(LCC)의 부산 출발 노선이 인기가 많았는데 이 역시 판매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일본 지방 소도시까지 촘촘히 노선을 운영했던 LCC들은 수익성 낮은 노선에 대한 구조조정에 돌입해 이 같은 추세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티웨이항공은 무안~오이타 노선과 부산~오이타 노선을, 대구~구마모토와 부산~사가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다. LCC 뿐 아니라 대한항공도 부산~삿포로 노선을 없애기로 했다. 전이에서 3회로 줄이는 등 노선을 없애지는 않더라도 운항편이 줄어들어는 지역도 여러 곳이다.

일본행 발길이 뜸한 대신 싱가포르와 타이완 같은 동남아, 근거리 해외여행자가 주목을 받았다. 이베이에서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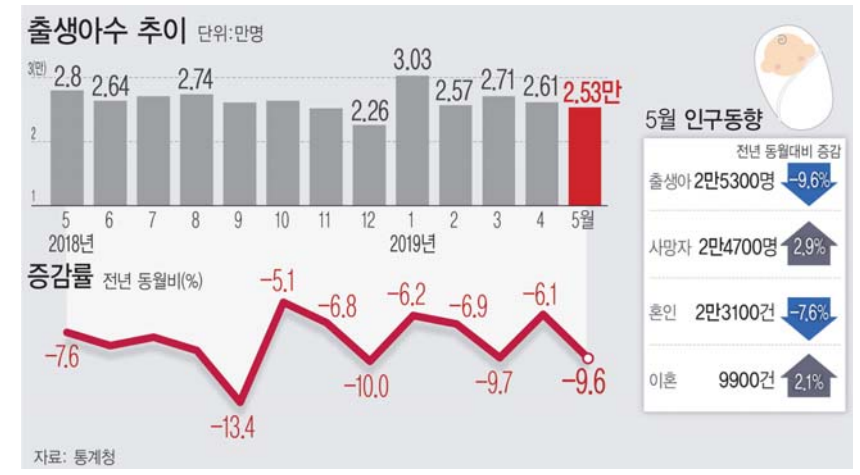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 탑승수속 시간에 열린 체크인 카운터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간 싱가포르와 타이완 항공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 38% 증가하며 국제선 항공권 평균 매출 성장률(23%)을 크게 웃돌았다. 이외에도 마카오(33%), 홍콩(22%), 블라디보스톡(129%) 등 근거리 해외 노선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에 항공업계도 줄어든 일본 노선 대신 중국이나 동남아 등

대체 노선 증편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제주도로 눈을 돌린 여행객도 많아졌다. 7월 한 달 간 옥션에서 제주도 호텔 카테고리 매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1%나 뛰었다. 국내 호텔 전체 매출 성장률은 87%보다 4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 5월 출생·혼인건수도 역대최저 “하반기부터 인구 자연감소 가능성”

### 통계청, 인구동향 발표

올해 5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치를,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각각 찍었다. 통계청의 예측대로 하반기 중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인구 '자연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한층 현실화될 셈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5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2만5300명(2.53만)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700명(-9.6%)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통상 출생아 수를 비롯한 인구 관련 통계는 계절성을 고려해 전년 동월과 비교한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42개월째 연이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해 온 건 2016년 4월부터로, 38개월간 지속됐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지난달 5.8명이었다.

지난달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700명(2.9%) 증가한 2만4700명으로 집계됐다. 5월 기준 사망자 수는 2013년부터 6년째 증가해 올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조사방물은 5.7명

이었다. 인구의 자연증가분(출생아 수-사망자 수)은 600명에 불과했다. 이 역시 5월 기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2004년부터 1만명대 수준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던 자연증가분은 2016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1000명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의 '자연감소'가 실현될 가능성이 바짝 다가온 것이다. 통계청은 월 기준으로 인구의 자연감소 시점을 예측하고 있던 않다. 다만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자연증가가 감소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혼인 건수는 2만3100건으로 1년 전보다 1900건(-7.6%) 줄었다. 5월 기준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으며 역시 1981년 이래 최저치다. 조혼인율은 5.3명으로 조사됐다.

이혼 건수는 99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건(2.1%) 증가했다. 5월 기준 2016년부터 4년 연속 늘었다. 조이혼율은 지난달 2.3명이었다.

뉴스

## 삼성 건조기, 美 2분기 시장점유율 1위

삼성전자 건조기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올해 2분기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30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트래클라인(Traqline)에 따르면 삼성 건조기는 올해 2분기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에서 20.7%(금액기준)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도 20.7%로 1위를 유지했다.

미국 건조기 시장은 소비자들이 세탁기와 건조기를 같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보급률이 80%에 육박하며, 약 76만대 규모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 삼성전자는 경쟁이 치열한 미국 건조기 시장에서 2017년부터 연간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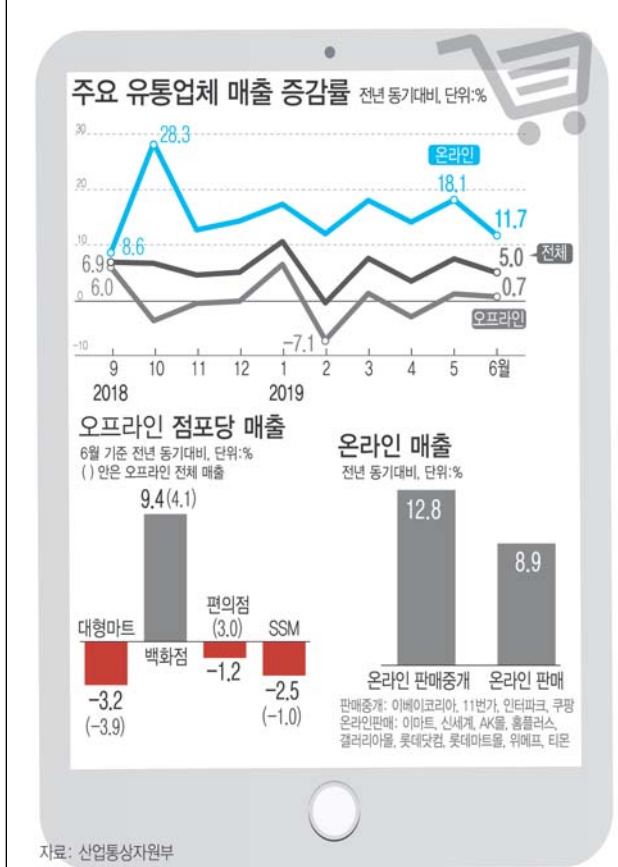


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IT 전문 매체인 디지털트렌드는 "삼성 건조기는 사용환경에 따른 다양한 건조 모드를 제공하고 내구성도 뛰어나다"며 삼성 건조기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조기'로 선정했다.

뉴스

## 6월 유통업체 매출 5% ↑...온라인·백화점 웃고 대형마트 울고

### 산업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발표



지난달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모두 늘었다. 여름 신상품과 가전제품 수요가 백화점과 온라인 판매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9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유통업체 매출액은 10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각각 11.7%, 0.7% 늘었다.

업체별 매출 비중을 보면 온라인판매증가가 2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편의점(18.8%), 대형마트(18.6%), 백화점(17.2%), 온라인판매(11.6%), 준대규모점포(4.4%) 순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경우 백화점(4.1%), 편의점(3.0%) 매출이 증가했다. 반대로 대형마트(-3.9%), 준대규모점포(-1.0%) 매출은 줄었다.

편의점은 국산담배 판매 증가로 담배 등 기타(23%) 품목 매출이 성장했다. 백화점은 신상품 출시와 임시할인매장(팝업스토어) 행사로 해외유명브랜드(23.6%) 매출이 크게 늘었다. 가전제품을 비롯한 가정용품(12.6%) 매출도 증가했다.

대형마트는 스포츠(-11.0%), 가전·문화(-7.3%), 식품(-0.8%) 매출이 줄었다. 준대규모점포는 비식품(-6.2%)과 농수축산(-0.8%) 부문 매출이 감소했다.

온라인판매증가 매출은 지난해보다 12.8% 늘었다. 배송 서비스 강화를 통해 식품(35.5%), 생활·가구(15.9%) 부문에서 큰 성장세를 보였다.

온라인판매 매출은 8.9% 증가했다. 특히 계절가전과 주방가전 상품이 많이 팔리면서 가전·전자(30.5%), 서비스·기타(12.3%) 부문이 호조세를 보였다.

뉴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